

“美, 中과 첨단기술 갈등 지속” “ESG 더 중요해져”

〈환경·사회·지배구조〉

바이드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 행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관련 정책 및 한국 경제 영향

주요 정책	내용	한국 경제 특실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4년간 2조 달러 투입 -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 에너지 고효율 도입 - 태양광 패널 5억 개 설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 미국 내 수요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전기충전소 50만 개 설치 등	
국제 공조 강화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관세 부과 우려
탄소조정세 도입	- 화석에너지 사용량 따라 세금 부과 -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품목 추가 관세	

자료: 한국무역협회 등



美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세계경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사전 녹화 연설과 온라인 대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

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트럼프의 경제교사’ 슈워츠먼 “中과 기후변화 타협 의지 지켜봐야”

노벨경제학상 수상 스펜스 교수 “美 무역투자 체계 재정립 필요”

후쿠야마 미스탠퍼드대 교수 “트럼프 이전으로 회귀는 힘들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은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음

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
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
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앞줄 가운데) 국가기
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
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의 치유와 단합, 한국에도 꼭 필요”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이 본 바이든 당선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 가장 필요한 가치로 ‘치유’와 ‘단합’을 꼽았습니다. 한국에도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평소보다 톤을 높여 연설했다”며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준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반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가장 친분이 많은 인사로 꼽힌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이 반 위원장에게 더욱 각별히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반 위원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07~2016년으로 이 기간 중 8년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또 지난 9월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모교인 델라웨어대에 ‘바이든 공공정책·행정대학교’가 설립되자 반 전 총장에게 영상 연설을 부탁하기도 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선이 끝

사무총장 시절 바이든과 교류
델라웨어대 연설 부탁받기도

“당선인은 매우 격조 높은 분
어느 회의든 좌장 역할 도맡아”

났으니 치유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한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술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바이든 당선인은 믿음, 민주주의, 존엄성, 인간성 등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수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믿음과 용기가 사회에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한 발자국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을 ‘격조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사망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두 번 고배를 마시는 등 고생을 많이 한 분이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상당히 격조 높은 분이고 어느 회의에서나 좌장 역할을 도맡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주최 국제 콘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다. 그만큼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과 조정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취지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다. 그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리라는 것이므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사에 잘못된 판단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계의 동반자적 성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반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줬고, 한국전쟁 때도 많은

미군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미국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국의 성공과 발전이 우리 힘만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많은 한국인은 각하가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미 동맹은 피로 굳게 맺은 군사동맹에서 시작돼 이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했으며, 각하의 리더십 아래 앞으로 더욱 공고한 동맹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2020년 11월 10일
24면 (기업)

국민연금, 2년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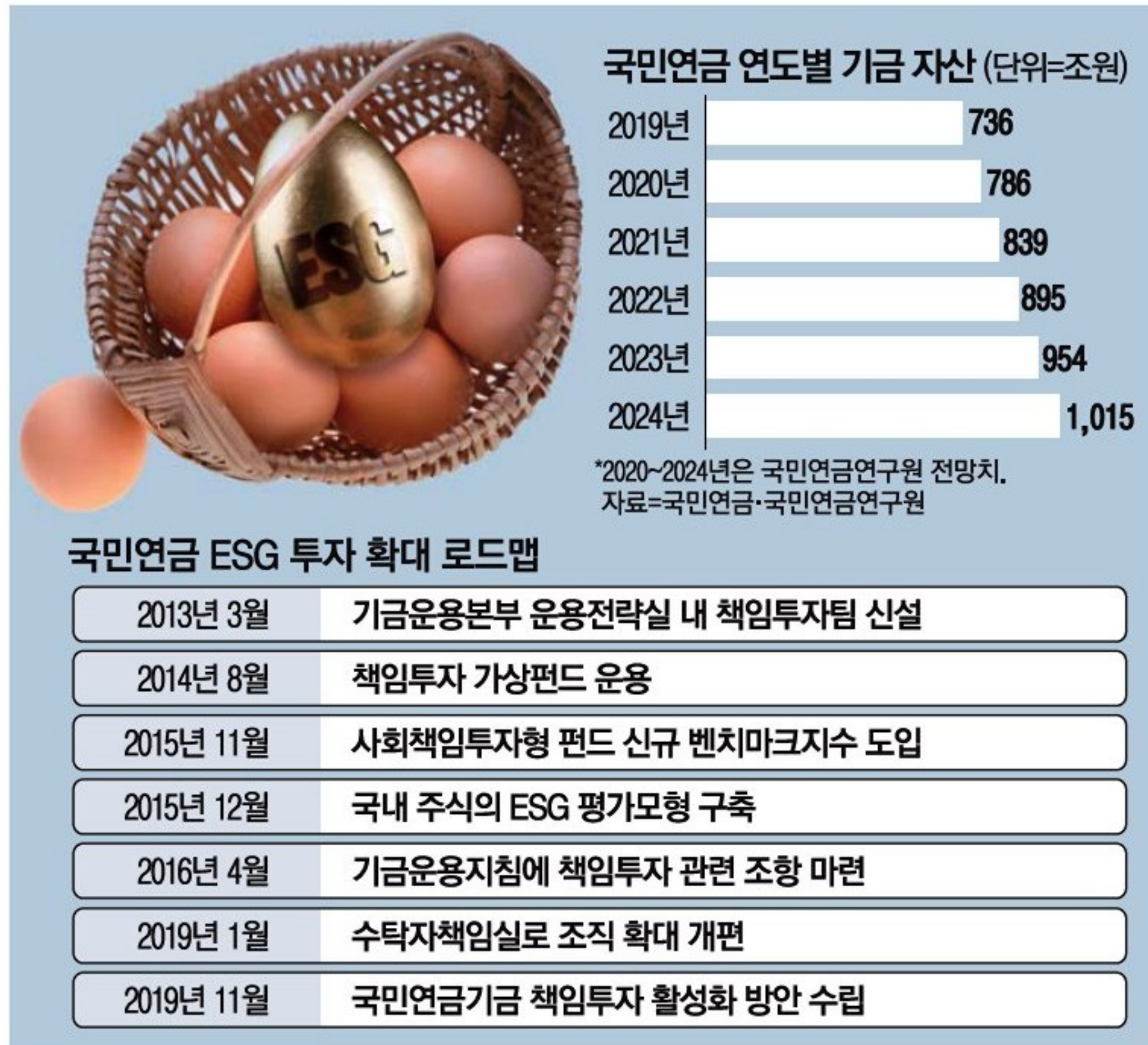
김용진 이사장 콘퍼런스서 밝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라 투자가 실행된다면 ESG 요소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액은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ESG 투자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탄소제로 등 공약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에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글로벌 자본 시장 큰손은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ESG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유엔 책임투자원칙기구) 자료에 따르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PRI 제정 첫해인 2006년 6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현재 103조4000억달러로 15년 만에 16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2024년 해당자산 500조 전망

ESG투자 아직 적용 안된 해외주식·국내債에 집중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ESG 관련 투자 확대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는 71조 6000억원이다. 기금 전체 자산 중 10% 수준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 실제 ESG 전략을 활용하는 자산은 27조원에 그친다. 국내 주식 위탁운용 자산은 약 60조원으로 ESG 투자는 5조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

계자는 “ESG 투자 확대는 ESG 요소를 기금의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의미”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32조 원이지만 올해부터 ESG 요소 반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기금자산의 절반수준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ESG 투자를 확대할 부분은 김 이사장이 언급했듯이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166조원,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322조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 발언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는 2024년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희남 KIC 사장도 이날 콘퍼런스에서 “현재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라는 화두 앞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용 전략을 수립해 그린 뉴딜 시대에 걸맞은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기금자산의 절반을 ESG 전략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큰 변화로 유럽·미국의 연기금 투자 트렌드와 부합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곧 발표할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를 보면 투자 종목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 주최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

“바이든 정부의 中 정책, 혁명적 변화 없을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혁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낮추지 않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이란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美, ‘관세 무기화’는 자제할 것”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블랙스톤그룹의 슈워츠먼 회장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당선 후에도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관세 정책 대신 양국의 호혜적 정책 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과거처럼 악화일로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바이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은 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의 화상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

“美, 中 인권문제 태도 안 바꿀 듯”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美, 외교정책 신속 복원 힘쓸 것”

행정부가 전 정부처럼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며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혁신과 국가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통하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다자주의로 복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등 미국 외교 정책의 신속한 복원에 힘쓸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 외교가에서 목소리를 다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랜드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바이든이 구상

한 경기부양책 등 경제정책이 제대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ESG 투자, 수익률 성과도 좋아”

세계 경제는 2022년에서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슈워츠먼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내년 말이면 누구든 원한다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부터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경제 회복은 지역 및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수습에 성과를 보인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도 음식·관광·항공업 등 대면 업종은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투자 흐름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은 “바이든이 주창한 민주주의 보호, 인명 보호, 다양성, 포용성, 다문화사회 등 ESG 중요성이 각계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진규기자 lovepen@hankyung.com

ESG에 쏙힌 국민연금

“2년내 자산 50% 투자”

김용진 이사장 계획 발표
최희남 사장 “KIC도 투자 확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2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반영한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금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도 책임 투자 요소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은 71조6000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는 26조90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에 맡긴 위탁운용 주식 가운데 ESG 투자는 5조1000억원이다. ESG를 고려한 자산이 현재 36조 원가량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인 400조~5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ESG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



김용진 이사장



최희남 사장

렌드를 공유하고 책임 투자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금융·투자사들도 ESG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주 건설업계 퇴직연금 기금 CBUS의 크리스티안 포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이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는 호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ESG가 많은 기업에 ‘파괴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피유시 굽타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최고경영자(CEO)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라며 “투자금을 어디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와 경제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는 2024년까지 200억달러를 지속 가능 산업에 투자하는 등 ESG에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기울인 금융사로 꼽힌다.

임현우/김익환 기자 tardis@hankyung.com

“바이든 당선으로 ESG 고려한 책임투자 중요성 커져”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

제각각 평가기준도 합의점 찾을 것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투자시장에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현재 제각각인 평가 기준도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책임투자 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헨리 페르난데즈(사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내외 투자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구글 캡처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ESG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환경 요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ESG 요소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제각각이어서 비판도 나온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ESG 관련 평가가 기관별로 다르다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오래된 기관인 신용평가사는 (과거에는 기준이) 다양했다가 점차 수렴해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게 됐다”며 “ESG 평가도 점점 표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비재무적 요소여

서 수렴이 어렵다”면서도 “바이든하에서 규제 당국이 ESG 평가기관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선 국민연금공단과 KIC 등도 자산운용에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 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기업과의 대화 주제를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하고 대상 자산을 해외 주식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SG가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껴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성한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은 “공적기금은 효과적인 ESG 원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

“바이든, TPP 재가입 가능성 있어… 韓 통상 정책 다시 짜야할 수도”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코로나로 부실한 리더십 민낯 드러나
트럼프 낙선, 전제·균형 작동 보여줘”

“美갈등 봉합, 경제회복 등 문제 산적
트럼프와 완전히 등돌리기 힘들 듯”

“미·중 보복 조치 등 대결 양상 지속
동아시아, 양국 선택 딜레마 직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그간 공을 들였던 한국은 통상 정책의 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중 분쟁 해결 과정에서 WTO 문제점 드러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첫 다자주의의 결과물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WTO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생각이 일치하는 무역기구 회원국간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TPP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 11개국간에 맺어진 CPTPP는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무역협정 체결보다는 국내이슈(경제재건, 일자리창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등 제 3국의 외교정책 방향 정립은 더욱 모호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이 지난 10년간 악화하면서 쌍방 보복조치가 단행되는 등 미·중 대결 양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중국이 응답할지도 의문이다. 동아시아는 중대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ocami81@

“코로나19의 중요한 파급 영향 중 하나는 경제 중심을 미국·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대중 융합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보여준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코로나19는 약 200년간 지속됐던 미국과 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선레이스 초반 열세를 뒤집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방주의 정책을 버리고 다자주의로 복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의 결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럼프 이전보다 훨씬 커진 중국의 존재감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주의 화귀 정책은 여타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한국 등 제3국의 외교 딜레마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대만 등 경제 빠르게 회복할 것”

세계적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9일 서울 조선포럼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대중융합적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

을 통해 마르크시즘은 종언을 선언했고 자유민주주의적 평화가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정치학계에 논란을 던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중융합적인 포퓰리즘을 낳았고 그 결과물이 트럼프식 미국 일방주의의 통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을 낳으며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실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 대규모 시위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역시 미국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며 “트럼프를 모방했던 브라질 인도 등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면도 한층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뢰’같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며 경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간 신뢰가 높아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준수가 이뤄진다”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중앙집권식 통제와 전문 관료의 국정 주도가 잘 작동한 국가로 경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범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및 국제정책이 트럼프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이어졌다.

로버트 줄리 전 세계은행 총재(전 미국무부 차관)는 “트럼프와 거리 두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열된 미국사회 봉합, 백신 보급, 경제회복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화당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

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도 “바이든 당선은 과거의 정상상태로 복귀는 아닐 것”이라며 “아시아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국제체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당선안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

세계 최대 사모펀드 “탄소절감 기업 투자 늘릴 것”

〈블랙스톤〉

바이든 시대, 친환경 뜀다... 글로벌 투자업계 ‘그린 투자’ 바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환경정책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투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향후 투자·인수하는 모든 기업 심사에 탄소사용량을 15%저감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ESG 투자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다. 국민연금도 책



임투자 적용 자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사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 ‘2020 E

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블랙스톤

은 투자심의 과정에 탄화수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을 인수 조건에 넣기로 계획했다”며 “우리가 투자하고 인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해당 기업의 베이스라인 대비 15%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자산 운용에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내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넓혀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에는 책임투자를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투자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ESG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회장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김경은·조해영 기자 ocami81@



‘ESG 글로벌 서밋’ 축하하는 반기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 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연합스

블랙스톤 회장 “탄소배출 15% 줄일 기업에 투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9일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투자시 탄소배출을 15% 줄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슈워츠먼 회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강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해서다.

슈워츠먼 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GE)·KB금융그룹이 개최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컨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회에서선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응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소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관세 정책이 아닌 양국 호혜적 정책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중 정책에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 향방에 대해 “두 국가가 얼마나 양보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전 세계 흐름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슈워츠먼 회장은 앞으로 기업 투자시 환경이슈 대응여부, 탄소배출을 15%가량 감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

美, 對中 대책 큰변화 없을 전망
대응방식은 다소 부드러워져
내년 경제 정상화 수순 밟을 것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조연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환경문제와 뗄 수 없고, 산불·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이어지고 있어 기업투자에도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됐다는 얘기다. 그는 “사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실제로 탄화수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곧 미국에서 백신 허가가

나올 것이라며 “2021년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원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 말부터는 경제가 정상화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블랙스톤의 한국 투자자산은 약 170억 달러 수준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는데 고무적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만 해결 가능하며, 미국 역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배출 제로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의 기술강국인데도 기후변화에 느리게 대응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미국 국무부 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총재 등이 참여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탈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2020 ESG 글로벌 서밋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가 9일 열린 가운데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반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한 기후변화의 파괴성을 볼 수 있었다”며 “공중보건 위험 증가, 공급망 충격, 보험사와 인덱스펀드 위험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변화 노력이 지금처럼 부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